

# 문화사회와 에코시스템

김 화 임\*  
(성균관대학교)

## 1. 들어가며

2011년 전 세계로 번졌나갔던 반 월가 시위는 빈부 격차에 대한 일시적인 격분만은 결코 아니다. 그 이면에는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고실업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지난 세기 말부터 제기되어왔던 ‘노동의 종말’을 실감케 하기에 충분하다. 제레미 리프킨 Jeremy Rifkin은 “1세기 이내에 시장 부문의 대량노동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에게서 사라져갈 것이다”<sup>1)</sup>라고 하였으며, 앙드레 고르 André Gorz는 “일자리가 이젠 사라져가는 중”<sup>2)</sup>이라고 보았다. 이제 “기술의 향상과 함께 생산성의 향상이 낡은 직업들을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낸다는 예전의 논리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sup>3)</sup> 독일의 경우 1989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다.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71-A00028).

1)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21쪽.

2) 앙드레 고르(임희근, 정혜용 옮김): 에콜로지카, 생각의 나무 2008, 43쪽.

3) Jeremy Rifkin: Der Europäische Traum. Die Vision einer leisen Supermacht, Frankfurt/New York, 2004, S. 66.

1995년과 2002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3천 백 만 명이 생산직에서 해고 되었고, 해마다 4백 4십 만 명이 해고 대상에 올라있다. 현재 생산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억 6천 3백만의 인력은 21세기 중반이 되면 단 몇 백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 성장 자체가 멈추어 선 것은 아니다. 생산성은 올라가고 있음에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적인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없애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들은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기회복 jobless recovery’이라고 부른다.

사회학자들은 이미 21세기 초를 기점으로 세계 전체 인구의 5분의 2는 임금을 받는 생활, 다른 5분의 3은 생계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를 제외한 유럽, 미국, 아시아,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의 상당 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 중심의 노동이 약화된 상태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거의 4분의 1일을 생계 활동으로 보내야 했었다면, 2000년대 이르러서는 그것조차 10분의 1도 안 되고 있다.

이제 모두가 고용되는 ‘노동사회’는 멀어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요구되는가? 이 글은 우선 노동사회의 대안으로 ‘문화사회’를 제안하였던 고르의 입장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면서, 문화사회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 문화사회가 생태론적 시각과도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에코시스템이 ‘신 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 2. 지속가능한 사회로서 ‘문화사회’

### 2.1 ‘문화사회’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비판요강』에서 “자본 자신은 노동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부의 유일한 척

도이자 원천으로 정립함으로써 진행되는 모순<sup>4)</sup>이라고 하였다. 자본 자체의 모순에 대한 이해에 의거하여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 모든 개인들을 위해 자유롭게 된 시간과 창출된 수단에 의한 개인들의 예술적, 과학적 교양<sup>5)</sup> 등이 조응하는 시대가 예감된다. 당시 마르크스는 오늘날과 같은 여가문화의 발달을 예견하지는 못하였을 터이다. 고르의 ‘문화사회 Kulturgesellschaft’는 한편으로 마르크스의 생각을 계승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상업적 여가 문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먼저 고르의 언급을 보자.

경제적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노동이 점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자율적인 활동이 지배적인 활동으로 될 것이다. 즉 ‘자유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시간보다 많아질 것이고, 노동보다 여가가 많아질 것이다’. 또 ‘여가는 더 이상 단순한 휴식이나 보원물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활시간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다. 노동은 단순한 수단으로 그 지위가 저하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반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유시간이다. 만일 창조성과 활기, 미학과 놀이가 노동에 따르는 효율성과 수익성이라는 가치를 압도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대격변이 초래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 바로 훌륭한 생활예술과 사회적 창조성의 혁신적 형태가 발명되어야 한다<sup>6)</sup>

고르의 ‘문화사회’란 “노동에 기초한 생산주의적 사회에서 자유시간 사회-경제적인 것보다 문화와 사회활동에 더 커다란 중요성이 부여되는 사회-로의 이행<sup>7)</sup>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문화사회’는 “근대의 경제적 합리성이 만들어낸 노동이데올로기가 삶의 중심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노동사회”와 대척점에 있으며, “문화가 삶의 중심원리가 되는 사회<sup>8)</sup>를 일컫는다. 하버마스가

4) 칼 맑스(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I, 백의 2000, 381쪽.

5) 같은 곳.

6) 이병천, 박형준 편,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III, 의암출판 1993, 364쪽에서 재인용.

7) 같은 곳.

8) 문강형준, “노동사회 비판과 문화사회의 이론적 지도”, 실린 곳, 문화과학 2006, Vol. No. 46, 137쪽.

문화를 포함한 공공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재봉건화를 경고한 바 있듯, 고르 역시 자동화에 의한 노동시간의 절감과 자유시간의 확보가 사회성원의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극소수에 한정된 혜택으로 돌아갈 경우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야만상태가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 시간’의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자유 시간’이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고르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노동시간을 계획적, 단계적으로 감축시키면서, 이러한 자유시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련의 관련 정책을 결합시키는 것이다.”<sup>9)</sup>이런 점에서 고르가 제안하는 문화사회가 되려면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의 상품 세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르는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적 입장을 취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전복적 사고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유럽의 좌파 혹은 좌파 정당들에 의해 새로운 대안 사회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의 ‘문화사회’라는 개념 역시 독일의 사회 민주당의 그것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문화사회로 가는 도정에서 Auf dem Weg zur Kulturgesellschaft”에서 “지불노동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오락산업이나 레저산업에 의해서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방지할 문화, 자율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 우리는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 즐거운 잔치 문화, 사고 문화가 유지되고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다”<sup>10)</sup>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볼

9) 이병천, 박형준 편, 366쪽.

10) SPD, “Auf dem Weg zur Kulturgesellschaft”, Entwurf für ein neues Grundsatzprogramm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ch, VII(Irsee, June 1986)

2001년에도 문화사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Die menschenwürdige Gestaltung der Globalisierung, die mentale Bewältigung des tiefgreifenden Umbruches in Ostdeutschland, aber auch die mit der digitalen Revolution einhergehenden neuen Arbeits- und Lebensverhältnisse brauchen eine entfaltete Kulturgesellschaft, die der Orientierungslosigkeit angesichts des Schwindens einfacher und nationaler Problemlösungen entgegenwirkt und

때, 고르의 ‘문화사회’는 노동시간의 감축을 전제로 개인의 자발성과 참여에 기반을 둔 ‘문화’를 활성화하는 일과 관련되며, 문화정책에 그 중요성이 부여된다. 상업적인 오락 및 레저문화와의 대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데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국가 Sozialstaat’를 통해 문화사회가 실현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학자 메츨러 Gabriele Metzler는 독일의 ‘사회복지국가’ 모델이 더 이상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역사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전제가 변화되었다. 1972년 이래로 출생률은 마이너스에 이르고 있다. 둘째, 표준노동관계와 지속적인 분담금 불입이 관례인 산업사회에 정향되어 있다. 셋째, 정의와 단결이라는 이해에서 더 이상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우리의 사회체계는 민족국가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고, 민족국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사회체계는 가능하다. 그런데 글로벌화와 함께 국가의 활동 여지는 갈수록 협소해지고, 특히 분배의 활동여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sup>11)</sup>라는 점을 들고 있다. 메츨러의 위의 언급은 작금의 ‘사회복지국가’ 모델이 시의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사회가 한 국가 단위를 통해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함께 삶에 대한 불안<sup>12)</sup> 역시 증대되고 있다.

---

verhindern hilft, dass rechtes und anti-demokratisches Gedankengut das geistige Vakuum auffüllt.”

11) Zit. nach Rainer Woratschka, in: Der Tagesspiegel, 26, Mai 2003.

“Der Sozialstaat ist an eine historische Konstellation gebunden, die es so nicht mehr gibt. Erstens haben sich die demografischen Voraussetzungen geändert, seit 1972 ist die Geburtenbilanz negativ. Zweitens war der Sozialstaat auf eine Industriegesellschaft ausgerichtet, in der Normalarbeitsverhältnisse und kontinuierliche Beitragszahlung die Regel waren. Drittens sind sich die Menschen nicht mehr einig, was sie unter Gerechtigkeit und Solidarität verstehen. Zudem ist unser Sozialsystem fest mit Nationalstaatlichkeit verknüpft. Nur so kann es funktionieren. Mit der Globalisierung werden die Spielräume des Staats immer enger, insbesondere die Verteilungsspielräume.”

12) 프랑스인들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미래에 대해 최고로 비관적인 상태인

그것은 메츨러의 지적대로 기존의 정치,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는 일이다. 만골드 Ijoma Mangold는 ‘새로운 하층계급’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들의 불행이 물질적 걱정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배제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층계급은 다수사회의 생활 형태를 누리 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양기관에서도 체계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sup>13)</sup> 바우만 Zygmunt Bauman에 따르면, “세계주민들이 세계화된 부자와 지역화된 빈자로 뚜렷해지는 분열”<sup>14)</sup>의 단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문화사회’가 ‘노동사회’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들의 정책적 변화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문화사회는 민족적, 국가적 차원을 넘어 보다 폭넓은 시야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인 대안이 되어야 한다. 생산력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생산양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사회를 위해서도 그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 2.2. 문화사회의 동력

고르의 '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지만, 원치론적 입장 그 이상을 개진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이 글은 보다 실천론적인 관점에서 문화사회를 위한 동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렇다면 ‘예술과 학문’, ‘제3부문’이 왜 문화사회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 2.2.1 “예술과 학문”<sup>15)</sup>

문화사회와 관련하여 ‘예술’과 ‘학문’을 주목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필러

---

것으로 조사됐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프랑스인 83% "미래가 불안하다"고 답변하였다. (머니투데이 경제 2011.12.01)

13) Vgl. Ijoma Mangold, in: Süddeutsche Zeitung, 9, Februar 2005.

14) Zit. nach Adrienne Goehler, Verflüssigungen. Wege und Umwege vom Sozialstaat zur Kulturgesellschaft, Frankfurt/New York 2006, S. 38.

15) 여기에서 ‘예술과 학문’은 필러의 언급을 빌려온 것이고, 이는 ‘문화’로 이해해도 무방해 보인다.

Adrienne Goehler를 꼽을 수 있다. 그는 예술과 학문이 지식과 예술 생산을 넘어서 미래 지향적인 사회, 달리 말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필러에게 문화사회란 문화가 생계수단인 그룹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문화를 창의성의 매트릭스로 보는 것과는도 긴밀하다. 그가 볼 때,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은 “창조적이며, 자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인들”<sup>16)</sup>없이 생각할 수 없다. 물론 그는 창의성이 특별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고, 모두에게 내재된 능력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창의성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차원적이며, 실험적인 사유 방식이다. 그것을 통해 예술적,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창의성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결부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먼저, 예술은 사회의 재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필러는 그 한 예로 브라질의 무용페스티벌 무브 베르림 Move Berlim에 출전한 그룹 >>Cia, de Dança Balé de Rua<<에 주목한다. 1992년 결성된 이 그룹은 요리사, 제빵사, 기능공, 농부, 지방 출신의 청년 실업자들로 모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춤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이상을 펼치면서 브라질 사회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점한 상태이다. 8년간 거리와 광장에서 실습 생활을 거친 후, 이들 그룹은 2000년 전문화되었고, 무용 학교까지 설립하였다. 그 사이 이 학교에서 150여명의 청소년들이 춤을 배우고 있다. 물론 이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가능치 않은 일이다. 중요한 사실은 청년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정부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브라질의 문화부 장관 역시 ‘문화’를 국가의 미래 능력이자, “정체성의 토대”, “사회적 차별 극복”의 도구로 인정하였다. 필러는 바로 이러한 “독자적이고, 자유로우며, 자기 발견적 작업”<sup>17)</sup>이 문화사회의 요체가 된다는 생각이다.

필러가 볼 때 예술과 마찬가지로 학문 역시 “자기성찰과 새로운 것의 창조, 즉 사유, 구성, 인식이 갖는 새로운 형태의 혼합”<sup>18)</sup>이다. 여기에는 ‘거부, 수

16) Ebd. S. 81.

17) Ebd. S. 39.

18) Ebd. S. 41.

정, 포기, 재발견'을 통한 새로운 것의 지속적인 시작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사유의 강화를 위해 정책뿐만 아니라, 대학 환경이 중요하다. 그의 의미에서 예술과 학문은 사용가치를 벗어나 창조적, 미학적 지식을 통해 사회를 문명화한다.<sup>19)</sup> 문화사회는 학문과 문화가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배하는 국가에서 생각하고, 행위하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0)</sup> 백 Ulrich Beck은 이런 의미에서의 예술과 학문을 두고 전 지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본에 대한 코스모폴리탄적 반대 세력이라고도 하였다.

고르가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를 우선에 두고 문화사회를 논하였다면, 필러는 앞의 의미에서의 예술과 학문이 문화사회를 추동하는 동력이 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필러는 '예술과 학문', 더 폭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 그가 레이 Paul Ray와 앤더슨 Ruth Anderson의 "문화 창조자들 Die Cultural Creatives"과 플로리다 Richard Florida의 "창조 계급 Die Kreative Klasse"를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레이와 앤더슨은 1960년 이래, 미국 성인 인구의 26퍼센트에 달하는 5000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관, 가치관, 생활방식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진단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제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창조적이며, 낙관적인 특징을 지닌 이 수 천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문화변화'<sup>21)</sup>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직업 역시 다양하다. 교육자를 비롯하여 새로운 종류의 비즈니스, 기술, 협력 벤처를 개발하는 사람들,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레이와 앤더슨에게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 세력에 대한 제3의 대안을 발전시키는 세력들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데 더 중요성을 두며, 스스로 좋아하고, 가치있는 일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19) Vgl. Ebd., S. 68.

20) Vgl. Ebd., S. 63.

21) 레이와 앤더슨에게 '문화'란 해결, 길, 견해를 시험하고, 연결하고, 거부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결부시키는 개인적인 변화의지이다.

비판적인 생산자이고 소비자이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 Qualität을 찾는 사람들, 발견하는 사람들,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다. 범국가적 시야를 갖고 있다는 점도 그들의 두드러진 특징에 속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까지 담보하는가?

유럽에서는 70년대 처음으로 대량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그 당시 생물학자 바이체커 Christine von Weizsäcker는 ‘생업노동 Erwerbarbeit’ 대신에 “고유 노동Eigenarbeit”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 ‘고유 노동’이란 독립적 시간, 고유한 판단력, 게슈탈트에 초점이 두어져 있으며,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곧 자기 동질성과 자기만족을 포함하고 있어 ‘창의적 노동’을 뜻한다.

플로리다가 예술가, 작가, 과학자, 오픈소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을 망라한 연구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듯 “진정으로 창조적인 사람들은 주로 내적 동기에 의해 창조성”을 발휘한다. 그는 “고유의 동기 유발은 창조성에 이바지한다. 그러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동기유발은 해롭다. 사람들이 주로 그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즐거움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어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부과한 어떤 목표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경우보다 더 큰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같다”<sup>22)</sup>고 하였다.

그의 언급대로 산업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경제적 자원은 땅, 노동, 자본이었다. 천연자원의 이용, 육체노동의 효율성이 곧 부의 창출과 경제 성장의 원천이었다. 포디즘, 포스트포디즘 시대를 넘어 ‘신 경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플로리다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화로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도전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메커니즘과 전략을 발견하는 것은 높은 생산성, 노동과 삶의 여건 개선 그리고 보다 지속가능한 개발 패턴으로 나아가는 핵심이다”<sup>23)</sup>라고 진단하였다.

플로리다와 마찬가지로 레이와 앤더슨 역시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요소를

22) 리처드 플로리다, Creative Class: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2002, 63쪽.

23) 리처드 플로리다(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옮김):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15쪽.

‘창의성’에서 찾는다. 다만 전자가 ‘창의성’을 경제적인 동력으로, 후자가 사회학적 발전에 중점을 두는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예술과 학문, 문화가 주목되는 이유 역시 ‘창의성’에 있다. 비자립적인 노동은 구제되지 못하고, 사라져갈 것이지만, 자기 활동적 노동, 다시 말해 자기실현 혹은 작품 창작의 의미에서의 노동은 구제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고르 역시 포이에시스 poiesis 의미에서의 노동은 미래의 중요한 노동형태라고 보았다.<sup>24)</sup>

### 2.2.2. ‘제3부문 der dritte Sektor’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에서 “생산성 향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시장 부문에서 추출된 사람들에게 제3부문(사회적 경제 the social economy)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sup>25)</sup>는 점을 역설하였다. 리프킨 역시 고르, 하버마스과 마찬가지로 부가 일부 계층에게 편중될 경우 심각한 사회 정치적 격변이 야기될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리프킨은 ‘제3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적 희생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방안으로 사적 부문 및 공적 부문 이외의 미사용 노동력을 건설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 바 미사용 노동력이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고, 시장 및 공공 부문과는 독립적인 제3의 힘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6)</sup>

‘제3부문’이란 국가, 상업적 시장, 사적 영역과 구분된다. 이를 테면 이익에 중심이 두어져있는 조직체, 협회, 기업들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제3부문은 경제적, 시장 전략적인 협소한 한계를 넘어서는 데 그 목표가 두어져 있다.<sup>27)</sup> 그 구체적인 예들로 리프킨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꼽는다. 즉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변화 활동 등 전 범위에서 수행되며, 공동체 서비스 조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정신병자, 불우 아동, 무주택자와 빈민들

24) Vgl. André Gorz: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 2000, S. 10.

25) 제리미 리프킨, 같은 곳, 33쪽.

26) 같은 곳, 315쪽 참조.

27) 리프킨에 따르면, 3800만 명이 제3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고, 전체 성장의 40%를 떠맡고 있다.

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에 속한다. 리프킨은 이러한 공동체 서비스를 전통적 형태의 노동에 대한 혁명적 대안으로 간주한다. 강제성도 없고, 금전적인 관계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sup>28)</sup>그 이외에도 전통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 도서관, 역사 단체 같은 비영리 조직, 정신적 차원을 탐사할 장소와 시간을 제공하는 종교 및 상담 조직까지도 포함된다. 유럽의 경우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구는 3800만 명에 이르며, 그 인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로 조사되고 있다.

이 부분이 문화사회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선 ‘공동체 연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시장적 관계를 대체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이다.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개인적 고립감과 소외감을 극복한다. 생산과 효율이 지배하는 작업장이 아니며, 제3부문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견해와 재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3부문’은 개인의 능력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업적인 관계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왜곡되기조차 하였던 개인의 능력이 구현될 수 있는 영역이다. 필러는 ‘제3부문’이야말로 인간의 능력, 재능,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영역이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개인의 잠재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 본, ‘예술’과 ‘학문’의 영역과 유관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가 관계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때, 문화는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적이며, 사회적 규칙을 매개하는 심급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나와 타자가 아니라, ‘타자와 함께 하는 나’”<sup>29)</sup>와 관계한다. 필러가 “문화사회의 이념이 (...) 문화적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sup>30)</sup>이라고 하는 것이나, 리프킨의 ‘제3부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28) 이런 점에서 리프킨은 고대 경제에서의 선물 주기와 유사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역사에서는 ‘두레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9) Adrienne Goehler, a.a.O., S. 61.

30) Ebd. S. 75.

시장과 민족국가의 협소한 차원을 넘어서 인류와 지구 전체를 포함하는, 확대된 의미에서의 개인의 충성심과 소속감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혁명적이며 사회의 구조화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의 전조이다. 이런 관점은 지구를 불가분적인 유기체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된 수많은 생명체들의 살아 있는 통일체로 간주한다.<sup>31)</sup>

‘노동사회’의 대안으로 ‘제3부문’을 적극 옹호하는 리프킨이나, 문화사회의 주창자인 고르 역시 생태론적 사유로 근접해 간다. 특히 고르는 『에콜로지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가 무상의 ‘공유제’ 영역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며, 상품 세계의 붕괴까지 당연시한다.

기계와 물품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었고 독점의 지위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지식과 콘셉트의 사유재산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것들을 구현하는 대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은 고정자본의 구성요소였던 것이다.

하지만 비물질적 콘텐츠가 더 이상 그것을 포함한 생산물이나 그것을 소지한 개인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 콘텐츠는 풍부한 재화가 되었고, 얼마든지 무한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가치를 모두 상실하고 무상의 ‘공유제’로서 공공영역으로 떨어져버린다. (...) 지식의 경제는 이처럼 공동의 자산이 될 소명을 띤 부를 토대로 삼는다. (...) 무상성의 영역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널리 확장된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상품의 지배를 기초부터 무너뜨린다.<sup>32)</sup>

고르의 생각대로 ‘무상성’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 세계가 붕괴되리라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의 미래 전망이 생태론적 사유와 결부되어 있고, 더구나 ‘에코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이 흥미를 끈다. 그는 자본주의의 퇴장과 함께 자체 생산의 공동 작업장들이 전 지구

31) 제리미 리프킨, 위의 책, 324쪽.

32) 앙드레 고르(임희근, 정혜용 옮김): 에콜로지카, 생각의 나무 2008, 38쪽.

적 차원에서 연결되리라 보면서, “노동은 문화의 생산자가 될 것이며, 자체 생산은 충분한 삶의 한 양식이 될 것이다”<sup>33)</sup>라고 한다. 여기에서 고르는 자연스럽게 에코시스템(생태체계)에 관심을 돌린다.

자연의 생태체계(에코시스템)는 산업체계와는 달라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재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이 능력은 극히 다양하고 복잡적이라서, 에코시스템으로 하여금 스스로 규제하고 복잡성과 늘어가 는 다양성 쪽으로 발전해갈 수 있게 해준다.<sup>34)</sup>

그는 에코시스템을 가리켜 “자기생성 및 자기재조직 능력”이라고 간단하게 피력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체계에서 ‘기술은’ 바로 자연의 그러한 능력을 훼손하면서 자연을 이성화하고 지배하며 자연을 예측, 계산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다. 고르는 앞으로의 사회가 ‘에코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리라 낙관한다. 이 글은 고르로부터 단초를 얻어 에코시스템이 문화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에코시스템이 유기체적 사회 형성에 보다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sup>35)</sup>

### 3. 에코시스템과 ‘신 경제’

#### 3.1 에코시스템<sup>36)</sup>

생물학자 카프라 Fritjof Capra는 생물계, 에코시스템을 논하기 전에 ‘생

33) 같은 곳, 43쪽.

34) 같은 곳, 48쪽.

35) 이와 유사한 판단은 문강형준의 <노동사회 비판과 문화사회의 이론적 지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6) 이 글은 에코시스템 일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삼을 수도 없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에코시스템은 문화사회를 위한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몇 가지 요소들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물'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 '생물' 이해와 관련하여 그는 칸트의 '기계'와 '생물'에 대한 구분에 주목하였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시계를 비유로 삼아 '기계'와 '유기적 존재 ein organisiertes Wesen'를 구분하고 있다. 즉 "하나의 시계에서 한 부분은 다른 부분들의 운동의 도구이지만, 하나의 톱니바퀴가 다른 톱니바퀴 제작에 작용하는 원인은 아니다.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다른 부분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sup>37)</sup> 이는 곧 시계의 각 '부분'은 서로를 위해서, 즉 기능적인 전체 속에서 서로를 떠받치는 존재라는 것이다. 반면, "유기적 존재는 기계만은 아니다. 기계는 운동하는 힘만을 가지고 있으나, 유기적 존재는 그 자체 형성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것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물질들에게 전달해 주는 (물질을 유기화하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운동능력(메카니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스스로 번식하고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sup>38)</sup> 바로 칸트는 '유기적 존재', 생물의 특징을 '스스로 번식하고 형성하는 힘', 달리 말하여 '자기 조직화'하는 데서 보았던 것이다. 이로써 칸트는 생명의 본질과 관련하여 '자기조직화'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기조직화에 대한 연구<sup>39)</sup>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구조들과 새로운 행동양식의 창조 역시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투라나 Humberto Maturana와 바렐라 Francisco Valera는 '자기생산 Autopoiese, self-production'<sup>40)</sup>이라는 말로 생물을 특징지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살아있는 체계는 자기 스스로를 생

37)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Hrsg. von Karl Vorländer, Hamburg 1954. S. 237: In einer Uhr ist ein Teil das Werkzeug der Bewegung der anderen, aber nicht ein Rad die wirkende Ursache der Hervorbringung des anderen; ein Teil ist zwar um des anderen willen, aber nicht durch denselben da.

38) Ebd., S. 237: Ein organisiertes Wesen ist also nicht bloß Maschine, denn die hat lediglich bewegende Kraft, sondern es besitzt in sich bildende Kraft, und zwar eine solche, die es den Materien mitteilt, welche sie nicht haben (sie organisiert), also eine sich fortpflanzende bildende Kraft, welche durch das Bewegungsvermögen allein (den Mechanismus) nicht erklärt werden kann.

39) 자기조직화에 대한 이론은 벨기에의 프리고진, 독일의 헤르만 하켄, 만프레드 아이겐, 영국의 러브록, 미국의 마굴리스, 칠레의 움베르코 마투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에 의해 개량되고 정교화된다.

40) 그리스 말로 'autos'는 'selbst', 'poien'은 'machen'이다.

산하는 체계”<sup>41)</sup>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서 생물은 곧 ‘자기생산조직 autopoietische Ordnung’으로 정의된다. 결국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생명체 유지를 위해 스스로를 생성하고, 스스로를 조직하며, 스스로를 지시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생물’이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인식은 그것의 시스템<sup>42)</sup>에 대한 탐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독일의 생물학자 헤켈 Ernst Haeckel이 생태학을 일컬어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싼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과학”이라고 정의한 이래로 생태학자들의 관심은 생물 시스템에 두어졌다. 카프라는 시스템의 특성을 패턴의 특성으로도 설명하는데, 생물을 해부할 때 파괴되는 것이 바로 패턴에 해당된다. 패턴은 요소들 사이의 관계구성을 뜻하며, 그것이 파괴되면 죽게 된다. 생물은 원자와 분자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무엇, 즉 비물질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무엇, 조직 패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카프라는 생명 패턴을 다음과 같이 특징짓는다. 우선, 비선형성<sup>43)</sup>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연결망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 마투라나와 바렐라에 의해 정교화된 자기조직화는 자기조직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구조들과 새로운 행동양식의 창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자기조직화 모형들이 갖는 특징은 모두 평형상태와는 거리가 먼 열린 시스템이다. 자기조직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와 물질의 일정한 흐름이 필요하며, 자기조직화를 보증하는 인증과도 같은 새로운 구조와 행동양식의 놀라운 창발은 그 시스템이 평형상태와 거리가 멀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비선형적인 상호연결성은 피드백 루프<sup>44)</sup>를 낳으며, 수학적으로는 1차 방정식으로 기술된

41) Zit. nach Fritz B. Simon: Einführung in Systemtheorie und Konstruktivismus, Heidelberg 2008, S. 33.

42)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원리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에서 정의되었으나, 영미권의 사회학에서 차용되었고, 루만도 자신이 사회학에서 이 용어를 차용하였다.

43) <수학> 일차 항뿐만 아니라 다른 항도 가지는 수식. 또는 그런 방정식으로 기술되는 현상.

44)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서 사용하여 시스템을 수정 또는 제어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 또는 처리.

다. 이에 기반하여 카프라는 자기조직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한다. 즉 자기조직화가 평형상태와 거리가 먼 열린 시스템에서 나타나며, 내적인 피드백 루프<sup>45)</sup>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비선형 방정식에 의해 수학적으로 기술되는 새로운 행동양식과 구조의 자연발생적인 창발이 그것이다. 카프라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물의 패턴은 더 크게는 생태계, 즉 에코시스템으로 확장되어 이해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도 던져주고 있다.

카프라는 생태계의 원리에서 인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탬이 될 만한 요소들로 “상호의존성, 재생, 협력, 유연성, 다양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로서의 유지가능성”<sup>46)</sup>을 꼽고 있다. 여기에서 상호의존성, 자원의 순환적 흐름, 협동 그리고 협력은 동일한 조직패턴의 서로 다른 측면에 속하며, 생태계가 유지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말한다. 생태계의 유연성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복수의 피드백 루프들로 가능하다. 이 루프들은 시스템이 변화하는 환경조건들로 인해 정상 상태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균형을 되찾게 해준다. 카프라가 볼 때 “생명의 그물은 유연하며, 끊임없이 요동하는 연결망”<sup>47)</sup>이다. 유연성의 반대는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직성은 시스템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다. 시스템의 파괴는 그 체제에 포함된 변수들의 최적의 값을 최적화하지 않고, 어떤 단일한 변수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카프라에 따르면, 에코시스템의 회복력 역시 다양성에 힘입고 있다. 특정 생물종이 심각한 교란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그 결과 연결망이 한 사이클로 끊어졌을 때, 다양성을 가진 에코시스템은 살아남아 스스로를 재조직하게 된다는 것이

45) 프리초프 카프라(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사 출판부 1998, 121쪽 (반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그물망까지도 상품으로 취급한다. 사적인 이익 추구는 환경악화와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퇴보시키면서 공적 비용을 야기하며, 미래 세대를 희생시킨다. 이 경우 시장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피드백이 결여되어 있다.)

46) 같은 곳, 395쪽.

47) 같은 곳, 396쪽.

다. 따라서 연결망이 더 복잡할수록, 상호연결성이 더 복잡할수록 시스템의 복원력도 더 커지게 된다. 이렇듯 생태계에서 “유연성flexibility과 다양성diversity”<sup>48)</sup>이 생태적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요소이듯, 지속가능한 사회 역시 이러한 요소들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고르와 리프킨이 문화사회, ‘노동사회’의 극복을 위해 제기하고, 다다른 도달점이 생태적 세계, 달리 말하여 생태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카프라는 에코시스템의 원리로부터 지속가능한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에코시스템의 원리로부터 문화사회로의 길, ‘신 경제’의 구현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3.2 에코시스템과 ‘창의적 도시 환경’

고르는 앞에서 언급한 『에콜로지카』에서 노동자체와 상관없는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재분배하여 누구나 일 할 수 있고, 일을 좀 더 잘 하면서 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동시에 노동에서 놓여난 시간을 개개인이 선택한 활동·가령 상호부조, 서비스 교환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의 공간 창출과 함께 “건축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노동都農 관계를 다시 생각하여 생활과 활동의 영역에서 장벽을 제거하며 자기 조직된 교환을 용이”<sup>49)</sup>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고르의 구상은 삶과 삶의 환경이 경제학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학적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는 활동영역을 늘리는 것이며, 앞에서 언급한 바, “자기생성 및 자기재조직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고르의 구상 역시 현실적으로 구현되기에는 아직 막연해 보인다.

고르의 주장과는 별도로 플로리다는 ‘신 경제’와 관련하여 ‘도시’에 주목하는데, 이때 그의 ‘도시’는 고르의 에코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즉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도시의 경쟁력은 에코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플로리다는 ‘도시 어메니티’에 관해 언급할 때 에코시스템을

48) 같은 곳, 395쪽.

49) 앙드레 고르, 에콜로지카, 70-71쪽.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 결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코시스템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듯 하다.

플로리다가 개별 도시들과 지역을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잣대는 ‘기술 Technologie, 재능 Talent, 관용 Toleranz’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구 당 특허가 많은 지역은 동성애자, 이민자, 보헤미안,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 역시 많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해방시킬 수 있는 여건은 ‘개방적인 문화’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방적인 문화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정해진 틀에 끼어 맞추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달리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문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정체성이 인정되는 문화가 창조성 유발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에코시스템의 ‘유연성’과 ‘다양성’으로 표현해도 될 듯하다.

그의 의미에서 ‘인재’들은 이러한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에코시스템이 그 자체로 작동하는 ‘자연 어메니티’를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창조경제가 부상하기 이전, ‘환경’과 ‘자연 어메니티’는 단순히 원료 산지나 쓰레기 투기장 정도로 인식되었다.<sup>50)</sup> 그런데 이제 환경과 자연 어메니티 역시 경제 성장의 추동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플로리다의 발견이다. 산업사회에서 기업들은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렴한 토지, 저렴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육체노동, 경비가 절감되는 사업 환경을 우선적인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이제 기업가들은 어떤 환경과 자연 어메니티를 고려해야 하는가? 플로리다는 여러 도시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주력하는 건설 부문, 즉 스포츠 스타디움, 도시 고속도로, 도시 쇼핑몰 그리고 테마공원과 같은 관광 및 위락 지구 등은 실제로 창조계급에게는 무의미하거나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산업경제 시대의 프로 스포츠, 예술(오페라, 클래식 음악, 극장 등), 문화시설(박물관 및 예술 전시회)과 같은 값비싼 어메니티가 선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창조계급에게는 ‘소규모이면서 덜 권위적인 문화 공간’이 선호된

50) 리처드 플로리다(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옮김): 도시와 창조계급, 74쪽 참조.

다. 즉 문화, 예술 어메니티는 하이테크 산업과 창조적 노동자들을 유인하는데 있어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고, 또 다른 어메니티 요소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정, 사이클링, 암벽 등반 같은 야외 어메니티, 활기찬 음악 공연, 야외 레스토랑, 유기농 슈퍼마켓, 주스 바와 같은 격식이 없고 개방적이며 참여적인 레크레이션 활동에 대한 선호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인재’들을 위한 환경은 인위적으로 주어진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창의적 환경’은 디즈니랜드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놀이 문화와는 구별된다. ‘자연 어메니티’에서 사람들은 수동적인 소비문화 대신 능동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음에 분명하다. 능동적인 여가활동은 재충전과 함께 적극적인 몰입 경험을 가능케 하며, 새로운 창의적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플로리다의 연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시와 지역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의 연구 결과는 문화사회와 관련한 창의적 도시 환경 조성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 4. 나오면서

이 글은 이른 바, 노동사회의 종말, 자본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화사회에 대한 고르의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고르의 문화사회는 좌파 정당들의 정책 노선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것의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명은 미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창의성’에 기반을 둔 필러의 문화사회에 대한 논의를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창의성’이 사회 변화 및 발전의 동력이 되는 시대라는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플로리다의 연구에 주목한 이유는 인재들이 선호하는 ‘도시’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가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의 ‘도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자연 어메니티’는 문화사회의 주창자, 고르의 요구와도 일정 정도 맞아 있다. 가령 ‘소규모적이며 덜 권위적인 문화 공간’은 자급자족적이며, ‘자

기생성 및 자기 재조직 능력'을 갖춘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적합한 예가 될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리처드 플로리다, *Creative Class: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전자신문사, 2002.
- 리처드 플로리다(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옮김):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2008.
- 문강형준, “노동사회 비판과 문화사회의 이론적 지도”, 실린 곳, *문화과학* 2006, Vol. No. 46.
- 앙드레 고르(임희근, 정혜용 옮김): *에콜로지카, 생각의 나무*, 2008.
- 이병천, 박형준 편, *후기자본주의와 사회운동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의 위기와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III*, 의암출판 1993.
- 제레미 리프킨(이영호 옮김): *노동의 종말*, 민음사 1996.
- 프리츠포 카프라(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사 출판부 1998.
- Goehler, Adrienne: *Verflüssigungen. Wege und Umwege vom Sozialstaat zur Kultargesellschaft*, Frankfurt/New York 2006.
- Gorz, André: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M., 2000.
-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Frankfurt a. Main, 1979.
- Rifkin, Jeremy: *Der Europäische Traum. Die Vision einer leisen Supermacht*, Frankfurt/New York, 2004.
- Simon, Fritz B.: *Einführung in Systemtheorie und Konstruktivismus*, Heidelberg 2008.
- Sonderegger, Ruede T.: *Kultargesellschaft in der Krise*, Norderstedt 2008.

❖ ABSTRACT

## A Culture Society and the Ecosystem

Kim, Hwa Im

In the present context of systemic global crisis, this paper focuses on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vast members of the unemployes. A secure job lasting a lifetime has become more and more rare. Nowadays majority of jobs are part-time or temporary. André Gorz found a solution in a policy of the progressive reduction in labor time. This is the potential which automated production opens up for a culture society. Nevertheless, Gorz's proposal is based on utopion ideals.

This paper focuses on a dynamic force for a culture society, especially art, learning and the third sector. Adrienne Goehler underlines that a culture in the broad sense of the word produces economical and social productivity. In this connection Goehler give attention to 'Cultrual Creatives' and the Creative Class. Cultural creatives are comprised of peopl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culture with enlightened creativity. The Creative Class is a class of workers whose job is to create economic growth through innovation. Creativity is important for a sustainable society.

Gore and Rifkin both come close to the ecological thinking. Gore claims that ecosystem of nature have a self-organizing capacity. In this context tried to prove this article that ecosystem is closely connected with a creative environment.

---

### Key Words

문화사회, 에코시스템, 창의성, 문화적 창조자들, 창조계급

A culture society, ecosystem, creativity, Cultural Creatives, the Creative Class

94 비교문화연구 제26집 (2012. 3.)

논문접수일: 2012. 02. 06.

심사완료일: 2012. 03. 08.

게재확정일: 2012. 03. 16.